

## 1) 비밀의 나이



### 이 동화는요

이 동화는 우즈베키스탄의 음악가 '탄부리' 선생님이 제자를 찾기 위해 '나이'라는 악기를 이용하여 음악에 재능이 있는 아이를 찾아내는 이야기입니다. 탄부리 선생님을 찾아 온 아이들은 대나무로 만든 나이라는 악기를 건네받자마자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이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탄부리 선생님은 그때마다 아이의 각각 다른 재능을 알아보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한 아이가 나이의 길이를 재자, 탄부리 선생님은 이 아이가 후에 상인이 될 재능을 가졌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칼로 나이를 깎는 아이에게는 훌륭한 목수가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나이로 말 타는 흥내를 낸 아이에게는 말 타는 기수가 될 것이라고, 나이를 땅에 심은 아이에게는 정원사가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나이를 부는 아이를 발견하고 탄부리 선생님은 연주 기술을 끈기 있게 가르쳐 주어 이 아이는 훌륭한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이 제자는 후에 자신의 연주 기술을 전수해주어 나이 음악의 전통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동화를 통해 우리 모두 각자 재능이 다르다는 점과 좋은 문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자에게 기술을 가르쳐주는 좋은 스승과 성실한 제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동화를 본 후 어린이들은

- 우즈베키스탄이 125개 이상의 다양한 민족이 함께 어울려 사는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우즈베키스탄이 이슬람 문화와 종교를 통해 공통적인 예절, 음식, 축제 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 우즈베키스탄의 악기인 '나이'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 우리 모두는 각각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재능뿐만 아니라 오랜 연습과 고통이 따르게 된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 탄부리 선생님처럼 자신의 좋은 재능을 제자에게 열심히 가르쳐주고 전수해야 우리의 문화가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 동화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왜 탄부리 선생님은 제자를 찾았나요?
- 탄부리 선생님이 제자를 뽑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 탄부리 선생님은 어떤 아이에게 "음악가가 아닌 훌륭한 상인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해주었나요?
- 탄부리 선생님은 나이를 칼로 깎는 아이에게 커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해주었나요?
- 나이를 땅에 심고 물을 준 아이에게 훌륭한 정원사가 될 것이라고 말한 탄부리 선생님의 말처럼 이 아이는 훌륭한 정원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 탄부리 선생님처럼 훌륭한 음악가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무엇일까요?



## 알아봅시다.

- 우즈베키스탄은 125개의 다른 민족이 어우러져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인지 알아보시다.

### Tip!

우즈베키스탄 나라 소개 자료: 우즈베키스탄 주재 대한민국대사관 사이트에 가면 우즈베키스탄의 역사, 역사적 인물,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고려인의 역사,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관계 등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http://uzb.mofat.go.kr>). 우즈베키스탄은 다민족 다문화사회입니다. 125개 다민족으로 구성된 나라로서 우즈베크인(71.4%), 러시아인(6.3%), 타지크인(4.7%), 카자흐인(3.9%), 유태인(0.3%), 고려인(0.9%) 등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어우러져 사는 나라입니다.

- 대나무로 만든 악기인 '나이'의 소리를 들어보고, 우리나라 악기 소리와 어떻게 다르고 비슷한지 알아봅시다.



올리볼리 우즈베키스탄 동화편 「비밀의 나이」, 「이건 뭐예요」에 들어가 보면 '나이'의 생김새를 볼 수 있고, '나이'의 소리는 [classicmusic.uz](http://classicmusic.uz)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 탄부리 선생님은 터번이라 부르는 것을 머리에 썼는데,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머리에 쓴 터번과 현대에도 착용하는 톱프에 대해 알아봅시다.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머리를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이라도 함부로 남의 머리를 만지는 것은 매우 큰 실례입니다. 이슬람이라는 종교적 영향과 함께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모자와 두건을 착용해왔습니다.

- 터번: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터번을 '살라'라고 부릅니다. 과거에 주로 사용했고 높은 직업에 있는 사람일수록 높고 두꺼운 터번을 썼습니다. 살라는 지역마다 기후나 원단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만듭니다. 현대 우즈베키스탄 사회에서 살라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톱프를 많이 씩니다.
- 톱프: 톱프를 착용하는 것은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의 전통입니다. 톱프를 쓰는 기본적인 이유는 뜨거운 햇볕에서 보호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알라신에게 기도를 드릴 때에도 남자들은 머리카락을 감추기 위해 톱프를 이용했습니다. 남 여 모두 톱프를 쓰지만 남자는 주로 검정색과 흰색의 톱프를, 여성은 색깔이 있는 것을 씩니다. 특히 누가 돌아가셨을 때는 톱프를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 토포: 현대사회에서 남녀 모두 쓰고 다닙니다. 결혼을 한 여성은 무조건 머리를 묶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성은 러멀이라 부르는 두건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가립니다.



### 체험해 봅시다.

- 올리볼리 그림동화 사이트에 나와 있는 우즈베키스탄 원어를 따라해 봅시다.
- 내가 만약 '나이'를 받았으면 어떻게 했을지 연극으로 보여줍니다.
- 대나무로 만든 '나이'와 비슷한 악기인 피리를 가지고 와 함께 연주해 봅시다.
-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많이 쓰는 톱프, 터번, 토포, 러멀을 그려 보거나 입체적으로 만들어 머리에 써 봅시다.



## 참고자료

### 웹사이트

- 한국이슬람교중앙회: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한국이슬람교 중앙회 웹사이트 자료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http://www.koreaislam.org>
- 우즈베키스탄 주재 대한민국대사관 사이트: 우즈베키스탄의 역사, 역사적 인물,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고려인의 역사,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관계 등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http://uzb.mofat.go.kr>
- 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의 현황이나 한국의 정책 지원에 대해 알고 싶으면 재외동포재단에 웹사이트를 참고 할 수 있습니다.  
<http://www.okf.or.kr>
- 전통모자인 톱프 사진과 설명은 올리볼리 그림동화 우즈베키스탄 편 '이 나라가 궁금해요'에 나와 있습니다.  
[http://www.ollybolly.org/?mid=animation\\_curious\\_blog&category=234&document\\_srl=5194](http://www.ollybolly.org/?mid=animation_curious_blog&category=234&document_srl=5194)

### 동영상

- 중앙 아시아 이슬람 최대 축제인 나우르즈 축제 영상은 판도라사이트(<http://brand.pandora.tv/my.yunhap/41757628>)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올리볼리 우즈베키스탄 동화편 「비밀의 나이」에 등장하는 전통 악기인 '나이'의 모양은 '이건 뭐예요'에 나와 있고, '나이'의 소리는 [classicmusic.uz](http://classicmusic.uz)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 단행본

- 한양대 인류학과의 이슬람 문화 전문가인 이희수 교수의 아래의 책을 통해 이슬람 문화와 나라별 특수성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희수(2011), 『이희수 교수의 이슬람: 911 테러 10년과 달라진 이슬람세계』, 청아출판사  
이희수 (2010), 『톡톡 이슬람: 문화가 보인다. 세상이 보인다.』, 검동소  
이희수 (2007), “중앙아시아 실크로드의 이슬람-우즈베키스탄” 『오류와 편견으로 가득한 세계사 교과서 바로잡기』, 삼인